

◎한국 IPG의 활동

· '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01 IP 랜드스케이프'를 주제로 제36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5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주의해야
- 세계 유일 전시회 '여성발명명왕박람회(EXPO)' 개최
- 지식재산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전략 수립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MEGAPHONE 사무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ULB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제8회 아름다운 상표 수상작 '나들가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가게'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① ○ ② ×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IP 랜드스케이프'를 주제로 제36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



제1부 '지식재산정보는 왜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는가' 강연 장면

한·일 양국에서 지식재산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PATINEX', '2023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특허 정보 및 상표 정보의 비즈니스 응용과 관련한 행사가 한국특허청 주최로 연달아 개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일본에서는 IP 랜드스케이프, 한국에서는 IP R&D라 부르고 있습니다. IP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 11월 7일 '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IP 랜드스케이프'라는 주제로 제36회 한국 IPG 세미나(일본특허청 위탁사업)를 개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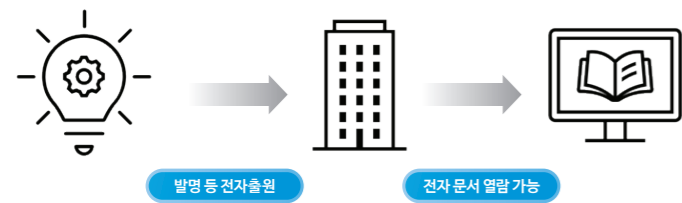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1,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JETRO 서울사무소의 오오츠카 부소장이 '지식재산정보는 왜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2부는 한국 IPG 리더인 한국히타치그룹 오오타니 토오루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오타니 대표는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기업의 미래 예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장 법률사무소의 정철환 변리사와 정연태 변리사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IP 랜드스케이프의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1부는 오프라인으로 2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 지식재산정보는 왜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는가

‘지식재산정보는 왜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각국의 특허청이 담당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비즈니스 활용 방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러한 정보가 전자화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인 특허출원의 경우 현재 전자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출원된 문서도 전자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특허청에서 관리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과 전자 문서 열람의 관계 모식도

한국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 혁신 최초·최고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특허청의 전자화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후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프로젝트 추진해 19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자화돼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자출원 비율이 98.8%에 이르는 등 출원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허넷 개통 이후 2005년 24시간 365일 전자 민원서비스 제공과 세계 최초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6년 대국민 전자출원 플랫폼 ‘특허로’ 출원, 2020년 세계 최초 모바일을 활용한 출원서비스 개통 등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계속해서 시스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출원 방식이 힘입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 정보 등이 축적·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일본의 경우 J-PlatPat(INPIT 제공)에서, 한국의 경우 KIPRI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 외의 유명한 사이트로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특허(Google Patents)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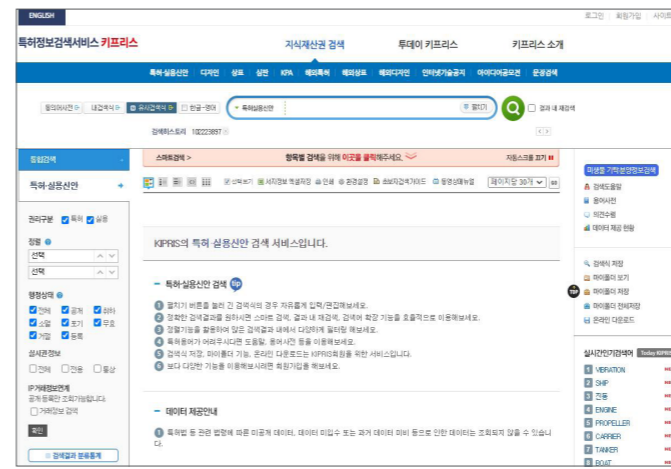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에서 자주 이용되는 J-PlatPat를 실제로 사용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비즈니스 모델 검토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J-PlatPat 검색 화면(특허·실용신안 검색)

【0011】
 【発明が解決しようとする課題】本発明は、上記の欠点を解消するためになされたもので、その目的とするところは、均一な餅食感を呈し、しかも長期にわたって出来たての餅食感が味わえる餅かまぼこおよびその製造方法を提供することにある。
 【0012】
 【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手段】餅は、澱粉のβ化とともに固くなるため、それをかまぼこに混合したとき、違和感を感じる。そこで、本発明者は、一体感のある餅食感を呈し、しかもその食感の劣化がなく、賞味期間中出来たての食感を楽しめる餅かまぼこの検討を鋭意進めた。その結果、β化を抑制した餅と、座りを抑制した魚肉すり身を別々に調製し、混合後、加熱形成するという方法により均一な餅食感を呈し、しかも劣化の極めて少ない餅かまぼこを得られることを発見した。さらに、餅と魚肉すり身を混合する際に、混合条件を所定範囲に設定することにより、餅食感の劣化・経時的変化がないことを発見した。
 【0013】すなわち、本発明の餅かまぼこは、単糖類および二糖類からなる群から選択される少なくとも一つの糖類を3.0~9.0重量%含有する餅と、食用油を7.5~17.5重量%含有する魚肉すり身とが混合されてなり、そのことにより上記目的が達成される。

J-PlatPat 특허 검색 결과 화면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할 경우 키워드가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 가능)



KIPRIS 검색 화면(특허·실용신안 검색)

이전까지 지식재산정보의 주된 이용 목적은 동일 출원의 존재 여부 확인, 이른바 선행기술조사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정보에는 기술 정보 외에도 경영 전략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다양한 업종 및 연대, 국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명이나 발명자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의 경우 기술문서에 해당하므로 기술적인 원인 및 대책 검색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정보를 통해서도 유의미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9월 13일 자 보도자료에서 ‘2023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소식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5월 양식당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고, 2023년 8월 양식당, 충전소 건축 승인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11월 양식당·호텔·자동차 수리업에 상표를 출원하고, 2021년 11월 복합 문화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열었다. 자동차에서 충전소, 양식당 등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상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분야에서 상표권을 취득했는가를 통해 앞으로 진출할 사업 영역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상표 정보만으로 기업 전략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P6)

● 지식정보에 대한 기대

2부는 한국 IPG 리더 오오타니 토오루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오타니 대표는 기업이 미래 사업에 대해 검토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관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방향성을 검토하는 마케팅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케팅 관점뿐만 아니라 판매

자가 자사 제품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프로덕트 아웃 관점 또한 중요함을 제시했습니다. 프로덕트 아웃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지식재산이 상품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IP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부 ‘지식재산에 대한 기대’ 강연 장면

●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IP 랜드스케이프의 활용 사례




제2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IP 랜드스케이프의 활용 사례’ 강연 장면

2부의 메인 세션에서는 IP 랜드스케이프의 전문가 정철환 변리사와 정연태 변리사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IP 랜드스케이프의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IP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IP R&D 지원 역사, 한국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정보는 물론 그 외 비지식재산정보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를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철환 변리사와 정연태 변리사가 '사내에서 IP 랜드스케이프와 같은 전략을 실시할 때 가장 적합한 부서 및 인재 육성 방안', '한일 양국 지식재산활동상의 IP 랜드스케이프의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IP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하여 한국 사업 진출을 검토할 때 분석 기법에 한국의 논문 및 홍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분석을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으로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IP 랜드스케이프'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후기를 마치했습니다. 본 원고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또한 날마다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1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어드바이스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입니다. '나들가게'는 '나들목' 등 유사한 단어를 쉽게 연상시키는 조어로 업종을 잘 드러내며 참신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자 지식재산뉴스 참조)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심결일 예고제 등 심판 당사자편의증진, 7월부터 제도 시행

| 한국특허청 (2023.7.4.)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② 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 출범 2주년 기념식 개최

| 한국특허청 (2023.7.26.)

2021년 7월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하였다.

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하여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였고, 특히

20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20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 한국특허청 (2023.9.11.)

특허청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20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높은(27.2%) 비율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건강관리'(23.0%)와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출원 증가율은 39.6%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증가율(14.7%)을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의 출원량은 연평균 37.8%씩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융합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 통계'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한·일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로 양청 국장급 회의 개최

| 한국특허청 (2023.9.15.)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15일(금)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비플러스 그룹(B+ 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제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File No.179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주의해야



이번 호에서는 특허청이 6월 26일(월)에 발표한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권이라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등의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인기 아이돌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상품 홍보에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5대 전략 중 하나인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업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영상, 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사업체 82개를 대상으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획사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인지도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약 80%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약 80%의 기획사가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예 사업에서 퍼블리시티 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약 80%의 기획사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 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습니다. 향후에는 OTT나 SNS를 포함한 인터넷상 활동 등 다른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침해 현황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 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 발각되는 권리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사 80% 이상이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해 인재 육성 및 인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사내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2.3. 침해 대응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나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특허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 BTS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K팝 관련 한류 콘텐츠의 중요도의 상승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대응을 실시해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외에도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라이선싱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기업 활동 및 국민의 의식 향상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IPG}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180

세계 유일 전시회 '여성발명왕박람회(EXPO)' 개최



이번 호에서는 7.20(목)부터 3일간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여성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유일 전시회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여성발명왕박람회(EXPO) 상세 정보

특허청 주최,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는 19개국에서 3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시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주인공인 박람회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여성 발명인 및 산업 디자이너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발명왕박람회(EXPO)"는 여성발명품의 우수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전시회"라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여성 기업인의 성장 사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역대 첫 여성 청장인 만큼 여성발명가를 지원하는 이번 박람회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처인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세계 최초의 여성발명가협회로 이를 통해 한국은 여성발명가에 대한 지원 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제23회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1.1.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19개국 350여 점의 여성 발명품을 대상으로 행사 첫날 현장 심사를 진행, 마지막 날 열리는 시상식에서 대상, 준우승, 금·은·동상,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152점은 국내, 202점(18개국)은 국외 발명품으로 많은 해외 발명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장금자 대표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준우승(세미 그랑프리)은 장현실의 '비상 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의 '탄성 튜브에 세정수 반복 주입 기능을 구비한 세정수 되채우기용 위생 비데', Dina

Saif AL-Mshhari(예멘)의 '지뢰 탐지를 위한 S.A-SAIF', Razan Alkalbani(오만)의 '엑스선 흡수 페인트'가 수상했으며, 일본인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1.2. '제23회 여성발명품박람회(EXPO)'

'제23회 여성발명품박람회(EXPO)'는 △생활(리빙)&실내장식(인테리어) △화장품(뷰티)&패션 △교육&정보기술(IT) △건강(헬스)&의료기기 등 주제별로 구성하여 여성발명기업 113개사의 발명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참가기업 중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쇼핑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여성 발명품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혁신과 결합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여성 발명가의 활동과 활약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 요즘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교육법의 창시자 마리아 몬테소리 등 여성의 업적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 동안 눈부신 업적을 남긴 위대한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상이 있습니다. 장영실상도 여성 수상자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여성 발명가의 활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세계 각국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 구조)를 고려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우선시하는 ESG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Social(사회)과 관련하여 'Diversity & Inclusion(다양성과 포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활약 및 리더십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을 고려한 사회 기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지지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한국 내에서의 노력에서 발명을 통한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발명가에게 힘을 주는 세계 유일 박람회에 참가한 모두가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IPG}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지식재산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전략 수립



2023년 9월 특허 정보 및 상표 정보의 비즈니스 응용 관련 행사 ‘PATINEX’, ‘2023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 ‘특허자료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한국특허청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지식재산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식재산정보의 활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식재산정보란

‘지식재산’에는 폭넓고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허청이 특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절차를 담당, 해당 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 및 브랜드 로고, 디자인 외에도 발명자·제작자, 기업, 연대, 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정보의 경우 과거의 정보도 전자 문서화되어 지금은 누구나 세계 각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에서는 IP 랜드스케이프, 한국에서는 IP R&D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사례

한국 특허청은 9월 13일 ‘2023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의 개최 사실을 밝히며 상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분석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상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상표는 예를 들어 ‘JETRO’와 같이 기업의 로고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 시 로고와 함께 ‘상품분류’도 지정해야 합니다. 즉 ‘JETRO 페인트’(상표)와 제2류 ‘도료’(상품분류)를 지정하여 함께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기업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 자동차 관련 기업

자동차 분야에 대한 상표를 취득한 테슬라와 현대 자동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레스토랑업등에 상표를 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화함에 따라 음식점에서 식사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음식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을 상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2.2. 화장품 및 의약품 관련 기업

의료 관련 상표를 취득한 존슨앤드존슨이 가상·증강현실 관련 상표를 출원·취득한 것으로부터 존슨앤드존슨이 가상현실 기반의 수술 교육 사업 등 기존의 의료 업계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화장품 관련 기업임을 언급하며 ‘기존의 화장품, 의약품 업계로부터 확장하여 가상 화장, 가상 수술 등 가상현실 업종에 신규 진출할 가능성을 상표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3. IP 랜드스케이프, IP R&D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는 특정 기업의 상표 출원 동향에서 파악한 기업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동종업계 기업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미래를 예측한 후 사업 전략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분석가의 노하우, 정보 출처가 특정 기업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IP 랜드스케이프 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흥미가 생겼다면

기사를 읽고 IP 랜드스케이프에 흥미를 갖게 된 독자분도 게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 사무소 등에서 IP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사 분석 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JETRO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뉴스 정보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츠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